리서치 하는데요

2026년 10월

읽을거리	**홍진기『사고외주』**
파트너	**조민영 님**
발제자	**이승준 님**
시간표	**[1] 19:40 트레바리&자기 소개** **[2] 20:40 쉬는 시간** **[3] 20:50 북 토크** **[4] 21:50 쉬는 시간** **[5] 22:00 북 토크** **[6] 23:00 마무리 발언** **[7] 23:20 모임 끝!**
공지사항	공지사항 <리서치 하는데요>에서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 하나. 우리의 다름을 배려하며. 나와 다른 관점을 존중하고 다른 생각을 함께 들어요. - 둘. 자기만의 생각을 공유하며. 생각을 나눌 때 비로소 생각이 정리되고 깊어집니다. 정답이나 결론보다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잠시 찾아오는 정적의 어색함도 마주해요. - 셋. 꾸준히 연결된 상태로. 모임이 끝난 후에도 카카오톡 채널과 뉴스레터,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해요.
북토크	**Opening** - 첫째, 트레바리 클럽 중에서 이번 시즌 <리서치 하는데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둘째,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이곳에 오신 만큼, 이번 시즌 활동을 통해 꼭 해소하고 싶은 고민이나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 셋째, 4개월 뒤 마지막 모임을 마쳤을 때, 무엇 하나를 얻어 간다면 '이번 시즌, 참 괜찮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 넷째, 이번 시즌에서 가장 기대되는 책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리서치 하는데요

2026년 10월

북토크

Intro | 이 책을 고른 이유

안녕하세요, 클럽장 레드버스백맨 이승준입니다. <리서치 하는데요> 시즌 9의 첫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모임 시작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 시작한 이 모임이 아홉 번째 시즌이 됐습니다. <리서치 하는데요>는 잔잔하고도 단단한 모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AI와 함께 일하는 마음,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성장을 키워드로 네 권을 골랐습니다. 오늘『사고외주』로 시작해『공간과 장소』,『저 청소일 하는데요?』를 지나, 1월에는 창덕궁이 보이는 안국 아지트에서『제철 행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선택지가 늘어나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양자택일에 비해 더 많은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주어집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을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중국집에 갔는데 점심용 메뉴만 따로 있으면 아쉽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택이 편해집니다.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피로도가 높아지니까요. 여기서 적절한 선택지란 어느 정도의 양과 질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용자에겐 어떤 선택지를 제시하는 게 '더 좋은 경험'에 해당할까요?

AI는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AI 서비스와 에이전트, 새로운 모델이 계속 등장합니다.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움'을 이야기할 때 AI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AI로 쓴 글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탈자도 없고 매끄럽습니다. 막히는 구석이 없으니 술술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쓴 사람 고유의 느낌이 없습니다. 읽고 나면 감각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좋은 경험에는 항상 '~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느낌이나 감상이 남지 않을까요?

LP, 테이프, CD, MD, MP3, 디지털 음원까지 모두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떤 매체는 트랙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건너뛰려고 하면 꽤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움직이면서 들을 때에는 음악이 튀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듣기 위해서 레코드를 바꾸는 절차도 필요했고, 뒤집기도 해야 했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리스닝 바처럼 음악 감상에 특화된 공간에서는 LP를 취급하곤 합니다. LP는 Long Playing Record를 가리키는데, 한 면에 기껏해야 5~6곡밖에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가장 긴 플레이였습니다. AI도 그럴까요? 인공적인 것과 지능적인 것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롱, 플레이처럼 되지 않을까요?

리서치 하는데요

2026년 10월

북토크

(쉬는 시간 전에 잠시!)

번추위 선정

한 달에 한 번만 모이는 게 아쉬울 것 같다면 번개로 모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번개는 필수가 아니니, 멤버들끼리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자율적으로 진행해보세요.)

두구두구, 이번 달 번개 추진 위원회를 맡을 멤버 1명을 선정해 보세요.

혹시 이번 달 번추위에 지원하실 멤버가 계실까요? 또는 함께 논의하여 멤버 1명을 선정해 보세요.

번개 추진 위원회로 선정된 멤버는 다음 모임 전까지, 오늘 멤버들과 함께 번개를 진행해 보세요. 맛집 투어, 미술관, 각종 액티비티 등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을 나누고 함께 즐겨요.

리서치 하는데요

2026년 10월

북토크

Book Talk 1 | 우리는 AI가 스며든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동화의 진정한 위험은, 그것이 인간을 잉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동화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 노버트 위너

저자는 내가 느끼는 나와 밖으로 드러난 내 모습이 어긋날 때 생기는 불편함을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내면과 외면이 따로 놀 때 사람은 안정감을 잃습니다. 사이즈가 큰 신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느껴지는 어색함 같은 거죠. 생각도 내 것이 되려면 사유와 마찰이 필요합니다. AI는 사고를 외주하여 결과물을 내놓는 도구입니다. 거리낌이 없고, 마찰도 없습니다. 내가 고민해서 만든 결과물보다 더 빠르고, 그럴듯한 결과물을 내놓는 도구는 마치 드래곤볼의 초사이어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게 해 줍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런 도구에 쉽게 적응한다는 겁니다. AI를 활용해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웠던 성과를 거듭 만들어 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는데, 애써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일, 구조를 짜는 일, 가정을 점검하는 일, 논리를 세우는 일, 이 결론에 이른 과정이 논리적인지 따지는 일이 귀찮아지고 또 무용해 보입니다.

어떤 결과물에 대해 주인의식이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그 결과물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요? 내 고민이 담기지 않은 결과물을 발표할 때에는 몇 차례 질문을 받기만 해도 답변이 어설퍼지기 마련입니다. 자기 주도권이 없는 결과물이 쏟아지는 시장에서, 저자는 인간이 자신의 환경과 결과물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할 때 효능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다음은 무엇일까요?

- Q. <리서치 하는데요> 시즌 9 첫 번째 모임인 만큼 AI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 AI를 가장 자주 쓰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중 가장 유용하다고 느낀 결과물은 무엇이었나요?

- Q. 내가 AI를 활용해서 만든 결과물이 내 것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AI를 활용했지만 분명히 내가 만든 결과물인데, 왜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미완의 감정이 남을까요? (대화가 깊어지면) 그 결과물에서 내가 주도한 것과 빌려 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리서치 하는데요

2026년 10월

북토크

Book Talk 2 | AI는 나를 얼마나 읽고 있을까

AI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AI 비서에게 똑같이 항공권을 찾아 달라고 했더니, 부자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훨씬 비싼 표를 골라 줬습니다. 시스코와 카네기멜런대 연구진이 9월 말에 낸 논문입니다. 오픈AI·앤트로픽·구글 등의 AI 모델 13개를 대상으로 32만 5천 번 넘게 실험했습니다. 항공권·건강보험·대학원 세 분야에서 13개 모델 중 8개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 더 비싼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격차가 가장 컸던 모델은 클로드 오퍼스 4.8이었습니다. 같은 요청에 항공권은 평균 198달러, 건강보험은 월 284달러를 더 비싸게 권했습니다.

AI가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을 읽은 곳은 프로필과 받은편지함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가상 인물에게 프로필과 이메일 10통을 줬습니다. 부자 버전에는 양도차익 세금 서류와 별장 잔금 메일, 저소득 버전에는 근로소득 서류와 퇴거 지원 메일. '부자'나 '저소득' 같은 꼬리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메일 몇 통으로도 AI가 내 지갑 크기부터 재는 셈입니다. 가상 인물로 한 실험이니 실제 서비스에서도 그런지는 모릅니다. 받은편지함만 줘도 격차는 남았고, 금융 정보를 직접 가려야 비로소 격차가 사라졌습니다.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 달라고 못 박았을 때도 일부 모델은 이 차이를 냈습니다. AI가 나를 더 잘 알수록 더 좋은 선택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둘.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UC 리버사이드 연구진은 AI를 업무에 사용하는 응답자의 14%가 AI로 인한 '뇌 과부하(brain fry)'를 겪었다고 발표했는데요. AI가 일을 대신해 주면 생각할 일이 줄어들 것 같지만, 여러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오히려 관리할 일이 늘어 피로를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피로보다 다른 것이 더 걱정됩니다. 어떤 질문이든 망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게 된 시대, 우리는 그만큼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알아간다는 느낌이 '지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도록 하죠. 그런데 이런 과정은 보통 단편적입니다. 파편입니다. 이야기의 서사는 결여되어 있고, 스스로 생각해서 좋은 질문을 찾고 고민하는 과정은 생략해도 되는 것이 되곤 합니다.

AI는 나를 읽고, 나는 AI에게 묻습니다. 정작 답이 안 나오는 고민은 내 몫으로 남겠지요?

- Q. 요즘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AI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Q. AI를 쓰기 전보다 일이 줄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됐다고 느끼시나요? 그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행동, 습관은 무엇인가요?

- Q. 내 받은편지함을 AI 비서에게 통째로 맡기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했는데도 AI가 나를 안다는 이유로 다른 답을 준다면, 그 결정은 여전히 내 것일까요?

리서치 하는데요

2026년 10월

북토크

Book Talk 3 | AI가 채워 주는 부분, 그 나머지에 대하여

놀라울 만큼의 성능을 보여 주는 AI는 불로초이자 만병통치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직관이 필요한 것,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것들 앞에서는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답변을 망설이거나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곤 하죠. 그렇다면 AI에게 맡기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Q. AI에게 질문을 하거나, 잘 정리된 프롬프트를 입력했지만 그 결과물이 예상과 달랐던 가장 최근의 사례는 무엇인가요? 어떤 점에서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나요?

- Q. AI는 중요한 결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전공이나 진로처럼 내 미래가 걸린 선택에도 그럴듯한 답을 내놓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대신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AI의 대답에 위로를 받거나 의지했던 경우가 있으셨나요?

- Q. AI를 만드는 기업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어떤 윤리와 품격이 요구될까요?
2026년 10월 중앙일보는 앤트로픽의 해적판 도서 다운로드와 관련된 보상 합의 대상 목록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흰』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앤트로픽은 해적판 전자책을 활용한 것과 별개로 종이책을 대량 구매한 뒤 절단, 스캔, 디지털화하고 종이책을 폐기하는 '프로젝트 파나마'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교보문고는 올해 미국, 영국 등 해외 업체 약 10곳으로부터 한국어 도서 대량 구매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책을 여러 권이 아니라 약 10만 종을 한 권씩 사겠다는 요청이었고, 구매 목적과 최종 납품처가 확인되지 않아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책을 샀다면, 그 책을 AI 학습에 쓰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AI는 거절할 수 있을까요?

리서치 하는데요

북토크

Outro | 아니면 말고

발제문을 쓰다 SNS에서 '스타벅스 김포 애기봉점 근황'이라는 사진을 봤습니다. 통창 너머로 강 건너 북한군 자주포가 포신을 매장 쪽으로 향한 채 서 있고, 손님들은 그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진을 찍습니다. 저도 처음엔 진짜인가 싶었습니다. 김포 애기봉 생태공원에 스타벅스가 있는 건 사실이고, 북한까지 1.4km쯤이라 전망대에서 망원 장비로 자주포를 찍은 실제 사진도 10월 25일에 나왔습니다. 자주포가 카페 창 바로 앞에 있을 리는 없고요. 언론은 실제 사진에 카페 장면을 합성했거나 AI로 만든 이미지로 추정했습니다.

사진이 진짜인지 가려지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그 장면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X의 게시물 조회수는 100만 뷰가 넘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샷과 포격을 빗댄 농담까지 돌았고요.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진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은 점점 쉬워집니다. 누군가의 의도로 만든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틀렸을 때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간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만든 사람, 공유한 사람, 그것을 보여 준 플랫폼 가운데 누구의 몫일까요?

- Q. 사실이라고 믿었다가 나중에 의심하거나 확인해 본 이미지, 글, 영상이 있으신가요? 그때 무엇을 근거로 믿었고, 무엇을 근거로 의심하셨나요?

- Q. AI가 '아니면 말고'에 쓰이는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는 접점에서 아쉬움이 남았거나, 오히려 더 만족스러웠던 적이 있으셨나요?

리서치 하는데요

북토크

Cookie | 서비스 공급자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클로드를 서비스하는 앤트로픽은 미국 국방부와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입장문에서 합법적인 국가안보 목적은 지원하되, 다음 두 가지 용도만큼은 계약에서 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인간의 개입 없이 공격 대상을 결정하고 무기를 운용하는 완전 자율 무기
2. 미국 국민에 대한 대규모 국내 감시

미국 국방부는 그럴 의도가 없다면서도 계약서에 제한을 적는 데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어땠을까요? 2026년 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앤트로픽과의 거래 중단을 지시했고, 바로 다음 날 이란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3월 초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 공격 과정에서 팔란티어의 표적 시스템에 결합된 클로드를 정보 분석과 표적 우선순위 산정에 활용했습니다. 계약 중단을 발표한 이후에도 실제 군사작전에서 클로드를 사용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대규모 감시를 막겠다는 그 선은 미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는 무엇을 지키는 걸까요?

AI를 만드는 사람과 쓰는 사람의 판단이 서로 다를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리서치 하는데요

2026년 10월

북토크

Appendix | 기억하고 싶은 문장

"인간은 원래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 온 존재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언제나 사고의 부담을 덜어 주는 무언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신의 계시, 전통, 권위, 규범, 제도는 모두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는 불안 대신 안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 p.37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불편함을 견디는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빠르게 답을 찾는 능력을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잠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모르겠다'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제시된 그럴듯한 답에 기대게 됩니다. 그러나 판단은 확실성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AI는 이 불확실성의 시간을 압축합니다. 그래서 판단의 장치를 유지하려면 의도적으로 여지를 남겨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결론을 유보하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 보고, 반대 근거를 일부러 탐색하는 태도 말입니다." - p.70

"조금 더 자라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학생은 '이 수학 문제 풀어줘'라고 말합니다. AI는 정답을 줍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은 '이 문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어디인지, 내가 왜 여기서 막히는지 설명해줘'라고 묻습니다. 이 학생은 정답보다 사고 과정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질문은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질문은 사고의 방향을 정렬하는 도구입니다. 무엇을 묻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로 묻는가입니다." - p.95

"우리는 오래전부터 정보를 빠르게 얻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배워 왔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 원리는 매우 분명합니다. 인류 문명의 변화 속도는 언제나 정보가 얼마나 빨리 이동하느냐에 비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기준마저 새롭게 업데이트되며, 그 양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이 속도를 따라잡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익숙하고 조금 더 잘 아는 단편적인 영역 안으로 숨어드는 것입니다. 정보는 분명히 더 많아졌고 접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도 더 늘어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회와 시야는 넓어지기보다 오히려 좁아지는 역설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p.97

리서치 하는데요

2026년 10월

북토크

Closing | 사고는 내가, 나머지는 외주

오늘 모임은 어떠셨나요? 첫 모임이라 어색함을 걱정하셨을 수도 있고, 기대한 것과 다른 것들에 만족하기도, 실망하기도 하셨나요? 직접 경험을 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벼운 책을 함께 읽으며 나눈 대화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민해야 하고, 생각을 돌아봐야 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수고스러움 속에서 내 생각의 유연성이 길러지기도 했기를 바랍니다.

모든 플랫폼에 AI가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의 선택지는 늘어납니다. 선택지가 늘어나면 비교가 늘어납니다. 비교가 늘어나면 판단은 더 자주 흔들립니다. 판단이 자주 바뀌면 행복감도 불안정해집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졌을까요, 아니면 고르는 일마저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어졌을까요?

AI가 스며든 시대에 AI도 불안 대신 안정을 주었을까요?

복잡한 상황을 정리해 주고, 여러 선택지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을 보여 줄 때 우리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은 안도감을 만드는 필요충분조건일까요? 스스로 고민하지 않은 선택에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AI는 그 선택을 책임지지 않는데, 우리는 AI의 답변에 얼마나 안심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맞는 적정 수준의 AI를 곁에 두고, 사고는 함께, 그 밖의 것들을 외주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토크

마무리 토크를 통해 오늘 대화를 되돌아보아요.
1. 오늘 모임은 즐거우셨나요?
2. 오늘 모임에서 머리가 띵! 했던 순간이 있다면?
3. 다음 모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우리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어볼까요?